

## LNK 주간기도(0326)

### 1. 북한에 영육의 양식이 보내지게 하소서



“코로나 기간에 지역 간 이동을 차단해서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됐죠. 북한 인구의 50% 정도가 장사를 해서 먹고 살거든요. 근데 장사 물품 유통이 금지되면서 설탕 같은 것은 20 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는데 농촌 주민은 잘사는 축도 옥수수과 흰쌀을 5대 5로 섞은 반짓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 옥수수가루 밥을 먹게 되고, 옥수수가루 밥을 먹던 사람들은 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풀밥으로 끼니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2023년 5월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일혁 씨가 전하는 북한의 실상이다.

“우리 하나님여 당신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 당신 자신을 위하여 황폐해진 성소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탄원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요 오직 당신의 큰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행하소서. 이는 당신의 성읍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기 때문입니다.”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다니엘 9 장 17 부터 19 절 말씀으로 계속된 심각한 식량난에 황폐해진 북한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복된 땅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굶주려 기진한 저들에게 양식을 보낼 길을 여사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영적인 기근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된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을 증거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북한은 매년 2~3 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전염병 예방 접종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올해는 백신 부족으로 예방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인지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약품을 절약하고 민간 치료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자력갱생만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의료진은 물론 주민도 “우리에게 당에서 내려준 만병통치약 자력갱생이 있다”는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자력갱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기도한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종족들이 그의 앞에서 경배하리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통치하시니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22 편 27 절, 28 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각종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 그들의 생활 환경과 수준이 개선되게 하옵소서. 무상치료라는 허상과 자력갱생이라는 우둔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3. 고난을 통과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소서



“두 번 수용소에 갔는데 수용소에는 아이부터 성인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 갇혀 있어야 한다. 수용소가 있는 지역의 겨울 평균 온도는 영하 20~30 도 사이다.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에 옷은 찢기고 얼굴은 혹독한 고문에 의해 멍든 젊은 여성들이 (간수에게) 성폭행당하는 일은 너무 흔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가 주관한 북한 여성 인권 실태 고발 행사에서 탈북민 장은숙 씨가 발언한 내용이다. 북한 주민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참된 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한 후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친히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뒤받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베드로전서 5 장 10 절, 11 절 말씀으로 북한의 고난 받는 백성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감옥과 수용소 등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겪는 허망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해 영혼의 구원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께서 그들을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4. 탈북자 척결을 우선순위에 둔 북한의 정책이 철회되게 하소서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후 처음 한 일이 탈북자들을 척결하는 것이었다. 이미 중국이나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잡아들이는 한편,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대를 철통같이 감시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봉쇄하고 있다. 이는 탈북자들을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위험 세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더 많은 탈북자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견고한 북한 체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으니 땅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솟아오른다.”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나훔 1 장 5 절 말씀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식량난으로 탈북한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북송하여 그들에게 모진 고문과 고통을 가하는 북한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탈북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길들이 마련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들의 왕래가 북한의 견고한 체제를 뒤흔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북한 회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5. 북한 지하교회 모임이 보존되게 하소서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S 시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것은 이분이 북한의 여러 지역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 계셔서 모임이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의 기도 요청이다.

“네가 인내에 관한 나의 명령을 지켰은즉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모든 세상에 림할 시련의 때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영광을 빼앗지 못하라 하라.”

요한계시록 3 장 10 절, 11 절에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믿음의 백성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여러 교회를 세우고 돌보아온 지하교회 지도자가 쓰러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사 강건케 하시고, 저가 돌보는 지하교회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여실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듣고 함께 열방을 향해 주님을 증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